

연구논문

미국내 아시아 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 인지도 연구

-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거주자를 중심으로 -

김선화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의류학과

Perceived Fitting Problems of Ready-to-Wear Garments
with Asian Women in U. S. A.
- Focusing on the residents of Twin Cities in Minnesota -

Kim, Sun-Hwa
Dept. of Design, Housing & Apparel, College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ABSTRACT : Recently, the population of Asian people has increased constantly in the United States., but appearances, culture and thoughts of Asian people are different with Americans in various ways, especially body shapes. Despite the recent developments in apparel size ranges in U. S. A., few changes have been made in sizing for Asian Women. Size ranges designed for Asian Women are not available on the mass market in U. S. A. They have many difficulties in finding clothing that fits well. Especially they do experience such as clothing problems in varying degree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lothing problems of Asian Women in relation with size and fit, Asian Women's present means of resolving their clothing problems in U. S. A.

60 Asian Women in Twin cities, Minnesota were interviewed during the period of October, 1991.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or demographic information on the selected sample and the chi-square test for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clothing problem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st respondents had shopped in a department store and 38.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rarely-fit of suit. Also 4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pants length was too long.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demographic variables i.e.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height and clothing problems of Asian women.

Key Word : Asian Women, Clothing-Fit, Fit-Problems, Sizing

I. 서 론

미국내에서의 아시아인들의 인구비율은 끊임 없이 증가되어 왔다. 최근 수년간 미국 이민자

들의 48%에 해당하는 수가 아시아인들이고, 미국내에서 아시아 이민자들의 수는 다른 인종들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시아인들은 미국인들과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의 체형은 미국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자기들의 체형에 잘 맞는 옷을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내 기존 기성복업체들은 주로 표준 사이즈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기성복들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즈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의복이 잘 맞지 않게 된다. Hogge 와 Baer(1986)는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 의복의 맞는 정도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에 아무리 다른 모든 요인들이 마음에 들더라도 그 옷의 맞춤새가 좋지 않으면 결국 구입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의복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결국 의류업자들에게 판매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에 의복의 맞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복 사이즈 시스템이 계속 개량되고 있으며, 몇몇 대기업체는 자체내에서 더 나은 사이즈 시스템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내에서 노인들, 장애자들,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들의 의복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Hogge & Baer, 1986; Kersh, 1984; Pray, 1987; Reich & Shannon, 1980; Sletten & Petrich, 1983). 이는 이들이 표준사이즈에 속하는 소비자 층과는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특별한 디자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내 아시아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잘 맞는 의복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내 아시아인들의 60% 이상이 캘리포니아주, 하와이, 뉴욕, 일리노이주에 밀집되어 있다(Cheng, 1986; Chen, 1986). 이와 같이 미국내에서 아시아 여성들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여성들이 미국내 의복시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체형분석과 그에 따른 의복 사이즈나 맞춤새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써 미국내 아시아 여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복맞음새정도와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사람들은 잘 입기를 원하고 잘 보이기를 원한다. 잘 입음으로써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갖게 된다(Horn and Gurel, 1981; Humphrey, Klaasen and Creekmore, 1971). 외모란 각각 개성이 다른 인체뿐만이 아니라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의복도 포함해서 나타난다. 좋은 자기이미지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의복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Stone, 1962). 인간은 의복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Jersild, 1957).

의복에 대한 만족과 불만은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의복의 맞춤새는 의복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며, 그 의복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Kundel, 1976). 의복이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란 대다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사실이다(Sizing From..., 1977).

Labat(1987)은 사람의 신체 비율은 의복의 맞춤새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재, 미국의 의류업체가 기반을 둔 이상형의 신체비율에 가까운 소비자일수록 의복의 맞춤새와 관련된 만족감은 높아지고, 그 비율에 벗어날수록 불만감은 높아간다고 하였다. 또 Labat(1987)은 의복의 맞춤새란 의복과 인체와의 관계로서, 맞춤에 대한 시각적 분석과 편안함의 물리적 평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Sieben(1985)은 의복의 맞는 정도는 두 번 평가된다고 하였다. 한 번은 의복을 구입시 짧은 시간에 느끼는 맞춤새이고, 다른 한 번은 입고 있는 동안에 느끼는 긴 시간의 맞춤새이다. Aldrich(1982)와 Minott(1978)는 의복이 적당하게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각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의복이 잘 맞는다는 것은 의복을 착용하는 동안에 착용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편안함이란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심리적, 생리적,

물리적으로 느끼는 유쾌한 것을 말한다(Slater, 1986). 그러나 편안함을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Denton(1971)은 편안함을 판단하는데 네 가지 물리적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의복의 중량, 동작의 용이성, 체표면에 대한 압력, 의복의 통기성 등이다.

미국의 의류업체들은 표준사이즈 시스템을 기준으로 자체내 개발된 사이즈에 따라 의복을 생산해내고 있다. 표준화된 사이즈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사이즈를 파악하게 하여 잘 맞는 의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Salusso-Deonier(1983)는 실험 결과 표준 사이즈 시스템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하였다. Labat(1987)은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표준 사이즈에서 느끼는 세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문제점은 표준 사이즈는 이상적인 체형을 모델로 하여 소수민족들과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배제되었다. 두 번째는 여성의 평균 체형이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험적 기반이 없으며, 세 번째로 모든 의류제조업체들이 표준사이즈에서 사용된 정확한 치수들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류업체들이 의복을 생산해내는데 표준사이즈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나 이들의 사이즈는 소비자들의 모든 체형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표준사이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소비자들은 잘 맞는 의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Sizing From..., 1977). 특히 대부분의 아시아 여성들은 이 표준사이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들의 체형은 이 표준사이즈가 규정하고 있는 체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여성들에게는 잘 맞는 의복을 찾기란 힘든 상황이다. 의복의 맞는 정도는 미국 표준 사이즈에 속하지 않는 아시아 여성들에게는 의복을 구입할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Ⅲ.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목적

1) 미국내 아시아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 맞춤새에 대한 문제점조사

2)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조사

3) 그들의 배경요인들(연령, 결혼여부, 직업유무, 키 등)과 의복문제점들과의 관계규명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1991년 10월 한달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60명의 아시아 이민여성들과 유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들의 배경상황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83.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일본, 한국과 대만에서 왔으며, 나머지는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이었다. 한국여성들이 반수 정도 차지하였다. 연령분포는 20세에서 54세까지이며, 63.3%가 25세부터 34세에 속해 있다. 또한 7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결혼하였다. 직업유무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46.7%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53.5%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45%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키가 158cm에서 164cm 미만에 분포되어 있다. 158cm미만과 164cm이상인 사람들은 25.0%와 30.0%로 서로 비슷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s		Frequency (n=60)	Percent- age(100%)
Nationality	Japan	8	13.3
	Korea	31	51.7
	Taiwan	11	18.3
	Other	10	16.7
Age	20-24	11	18.3
	25-34	38	63.3
	35-54	11	18.3
Marital Status	Single	18	30.0
	Married	42	70.0
Occupation	No	32	53.3
	Yes	28	46.7
Height	under 158cm	15	25.0
	158cm under 164cm	27	45.0
	164cm and over	18	30.0

2) 연구도구의 개발

아시아여성들의 의복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내 키가 크거나 작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Kersh(1984)와 Pray(1987)의 두 가지 설문지를 수정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두 번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설문지는 조사대상들의 배경요인들과 그들의 의복구입현황과 의복맞음새에 관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3) 자료처리방법

조사대상들의 배경요인들과 의복문제점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분석하는데 도수분포와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배경요인들과 의복문제점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chi-square test가 사용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미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달리 조사대상수가 60 명으로 제한되었으므로, 결과를 전 미국내 아시아 여성으로 확대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의복구입상황 및 맞음새에 대한 문제점

1) 의복구입장소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반수정도가 주로 백화점에서 블라우스, 스웨터, 스커트, 바지, 코트등을 구입하며, 바지와 스웨터의 경우에 할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드레스나 정장의 경우에는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가 제일 많았다. 다른 의복종류에서도 주로 상체와 관련된 의복에서는 한 번도 구입하지가 않았는데 20%에서 3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하체보다는 상체의 경우, 의복 맞음새와 관련하여 더 많은 부위가 잘 맞아야 하므로 그만큼 선택하기가 힘들고 잘 맞는 옷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드레스나 정장, 코트를 할인점에서 구입한다고 한 응답자들은 거의 없었다. 이것 역시 백화점보다 할인점이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해 놓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스커트와 바지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에 비해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20% 미만으로 아주 적었다. 바지나 스커트인 경우에는 허리나 엉덩이 부위만 잘 맞으면 옷길이는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허리나 엉덩이 부위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더라도 상의의 다른 부위보다 수선이 쉽기 때문인 것 같다.

Table 2. Sources of Clothing Purchase according to Clothing Items

n=60 (%)

	Blouse	Sweater	Skirt	Pant	Dress	Suit	Coat
Never Buy	19(31.7)	12(20.0)	10(16.7)	3(5.0)	24(40.0)	32(53.3)	20(33.3)
Discount Store	9(15.0)	14(23.3)	11(18.3)	20(33.3)	2(3.3)	3(5.0)	4(6.7)
Department Store	25(41.7)	29(48.3)	27(45.0)	25(41.7)	23(38.3)	18(30.0)	24(40.0)
Specialty Store	7(11.7)	5(8.3)	12(20.0)	12(20.0)	11(18.3)	6(10.0)	12(20.0)

미국내 아시아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 인지도 연구

2) 기성복의 맞는 정도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웨터와 스커트, 바지의 경우, 많은 응답자들이 보통 잘 맞거나 가끔은 잘 맞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장의 경우에는 거의 맞지 않다고 대답한 수가 38.3%로 제일 많았다. 블라우스와 드레스도 거의 맞지 않았는데 1/4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대답하였다. 이에 반해 스커트와 바지는 85% 정도가 가끔 혹은 자주, 항상 잘 맞는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상체보다는 하체에 잘 맞는 의복을 찾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의복맞음새에 관한 문제점들

Table 4에서 응답자들의 50% 정도가 허리, 엉덩이 부위, 스커트길이, 밀길이 등이 잘 맞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20%에서 35% 정도의

응답자들이 크지만 입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가슴둘레, 어깨부위, 등길이, 소매길이에서는 반수 이상이 크지만 입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지 길이에 있어서는 4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너무 길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20% 정도는 소매길이나 스커트길이도 길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리, 엉덩이부위, 밀길이를 제외한 인체의 각 부위에 대하여 작다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아시아 여성들이 표준사이즈의 미국 여성들보다 신체 각 부위가 전체적으로 작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등길이가 긴 정도보다 바지길이가 긴 정도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표준사이즈의 미국여성들보다 상체의 길이도 짧지만 전체 신장에 비해 하체의 길이가 더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Table 3. The Fit of Ready-to-Wear Garments

n=60 (%)

	Blouse	Sweater	Skirt	Pants	Dress	Suit	Coat
Never Fit	2 (3.3)	1 (1.7)	5 (8.3)	6 (10.0)	6 (10.0)	5 (8.3)	3 (5.0)
Rare	14 (23.3)	7 (11.7)	5 (8.3)	3 (5.0)	15 (25.0)	23 (38.3)	11 (18.3)
Sometimes	15 (25.0)	11 (18.3)	22 (36.7)	21 (35.0)	13 (21.7)	13 (21.7)	14 (23.3)
Usually	21 (35.0)	27 (45.0)	20 (33.3)	24 (40.0)	19 (31.7)	14 (23.3)	22 (36.7)
Always	8 (13.3)	14 (23.3)	8 (13.3)	6 (10.0)	7 (11.7)	5 (8.3)	10 (16.7)

Table 4. The Fit Problems of the Garments

n=60 (%)

	Bust	Waist	Hip	Shoulder	Neck to Waist at Back	Sleeve Length	Skirt Length	Pants Length	Crotch
Too large/long	7(11.7)	5(8.3)	5(8.3)	4(5.0)	2(3.3)	13(21.7)	12(20.0)	24(40.0)	2(3.3)
Large/Long but can wear	29(48.3)	15(25.0)	19(31.7)	29(48.3)	37(61.7)	31(51.7)	22(36.7)	19(31.7)	13(21.7)
Fit	24(40.0)	33(55.0)	28(46.7)	27(45.0)	18(30.0)	16(26.7)	26(43.3)	14(23.3)	38(63.3)
Small/Short but can wear	0(0.0)	5(8.3)	6(10.0)	1(1.7)	3(5.0)	0(0.0)	0(0.0)	3(5.0)	6(10.0)
Too small/short	0(0.0)	2(3.3)	2(3.3)	0(0.0)	0(0.0)	0(0.0)	0(0.0)	0(0.0)	1(1.7)

4) 의복문제점들의 해결방법

Table 5에서 구입한 의복이 잘 맞지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수선을 한다가 가장 많았으나, 그대로 두고 입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들도 3분의 1이나 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23.3%가 잘 맞는 브랜드만 구입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 번 잘 맞았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Table 6에서 수선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60% 정도가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구입한 가게에서 한다가 25% 정도로, 대부분이 본인 아니면 구입한 가게에서 수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Table 5. Methods of Solutions to Fitting Problems

Methods of Solutions	Frequency (n=60)	Percentage (100.0%)
Alternations	24	40.0
Purchase only brands that fit	14	23.3
Make own clothes	1	1.7
Nothing, just live with them	20	33.3
Other	1	1.7

Table 6. By Whom Alternation done

	Frequency (n = 24)	Percentage (100.0%)
Self	14	58.3
Store	6	25.0
Friend or Relative	1	4.2
Dressmaker or Tailor	1	4.2
Cleaner	1	4.2
Other	1	4.2

5) 배경변인들과 의복문제점들과의 상관관계

(1) 연령과 의복문제점들과의 관계

연령과 신체부위에 따른 의복문제점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한 문제점에 대하여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너무 적을 때에는, 분석 후 결과 해석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이 옷하는 문제점으로 합쳐서 X² 분석을 하였다. 즉, 연령에 있어서, 어깨부위와 등길이에서 작지만 입을 수 있는 경우와 너무 크다고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수가 없거나 한 명 혹은 두명으로 너무 적다와 크지만 입을 수 있다에 합쳤다. 그 결과, 연령과 의복문제점과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여부와 의복문제점들과의 관계

Table 7에서 등길이와 밀위길이 부위에서 결혼여부와 의복문제점들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부위에 있어서 결혼여부와 의복맞음새에 따른 문제점들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등길이의 경우에는 기혼여성들은 76.2%가 크지만 입을 수가 있다고 하였으나, 미혼여성들은 반 수이상 잘 맞는다고 하였다. 또, 현재 결혼을 한 사람들은 71.4%가 신체의 밀위길이 부위는 잘 맞는다고 했으나, 미혼인 경우에는 밀위길이 부위에서 잘 맞는다는 수가 가장 많으나, 맞지 않는 경우도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결혼한 응답자들이 모두 출산의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출산에 의한 체형변화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망된다.

Table 7. Relationship of Marital Status and Garment Fitting Problems

Fitting Problems	Marital Status		X ²	d.f.
	Single =18(100%)	Married n=42(100)		
Neck to Waist at Back				
long but can wear	7(38.9)	32(76.2)	8.311*	2
fit	10(55.6)	8(19.0)		
short but can wear	1(5.6)	2(4.8)		
Crotch				
long but can wear	4(22.2)	11(26.2)	11.875**	2
fit	8(44.4)	30(71.4)		
short but can wear	6(33.3)	1(2.6)		

* p<.05, **p<.001

미국내 아시아여성들의 기성복에 대한 맞춤새 인지도 연구

(3) 직업유무와 의복문제점들과의 관계

Table 8에 따르면 스커트길이에 있어서 직업 유무와 의복문제점들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여성들의 반이 스커트길이가 길지만 입을 수 있다고 하였고 31.3%가 아주 길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업여성의 경우에는 53.6%가 잘 맞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직업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캐주얼보다는 정장을 많이 입기 때문에 스커트길이가 긴 것을 선호하게 되고, 직업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발랄하고 개성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다 짧은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유무

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의복의 맞는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되어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직업의 종류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able 8. Relationship of Occupation and Garment Fitting Problems

Fitting Problems	Occupation		X ²	d. f.
	No n=32 (100%)	Yes n=28 (100%)		
Skirt Length				
too long	10(31.3)	7(25.0)	8.704*	2
long but can wear	16(50.0)	6(21.4)		
fit	6(18.8)	15(53.6)		

* p < .05

Table 9. Relationship of Height and Garment Fitting Problems

Fitting Problems	Height			X ²	d. f.
	under 158cm n=15 (100%)	158cm-164cm n=27 (100%)	over 164cm n=18 (100%)		
Bust				10.934*	4
too large	5 (33.3)	2 (7.4)	0 (0.0)		
large but can wear	6 (40.0)	15 (55.6)	8 (44.4)		
fit	4 (26.7)	10 (37.0)	10 (55.6)		
Waist				15.432*	6
too large	3 (20.0)	1 (3.7)	1 (5.6)		
large but can wear	7 (46.7)	5 (18.5)	3 (16.7)		
fit	3 (20.0)	20 (74.1)	10 (55.6)		
small but can wear	2 (13.3)	1 (3.7)	4 (22.2)		
Hip				20.088**	6
too large	3 (20.0)	2 (7.4)	0 (0.0)		
large but can wear	7 (46.7)	9 (33.3)	3 (16.7)		
fit	5 (33.3)	15 (55.6)	8 (44.4)		
small but can wear	0 (0.0)	1 (3.7)	7 (38.9)		
Shoulder				10.071*	4
too large	3 (20.0)	0 (0.0)	0 (0.0)		
large but can wear	5 (33.3)	15 (55.6)	9 (50.0)		
fit	7 (46.7)	12 (44.4)	9 (50.0)		
Neck to Waist at Back				13.725*	4
long but can wear	14 (93.3)	19 (70.4)	6 (33.3)		
fit	1 (6.7)	7 (25.9)	10 (55.6)		
short but can wear	0 (0.0)	1 (3.7)	2 (11.1)		
Crotch				15.834*	4
long but can wear	9 (60.0)	5 (18.5)	1 (5.6)		
fit	5 (33.3)	20 (74.1)	13 (72.2)		
short but can wear	1 (6.7)	2 (7.4)	4 (22.2)		

* p<.05, **p<.001

4) 키와 의복문제점들과의 관계

Table 9는 가슴부위, 허리부위, 엉덩이부위, 어깨부위, 등길이, 밑위길이 등에서 키와 의복 문제점들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슴부위에서는 키가 164cm 이상일 때는 잘 맞는다고 한 경우가 55.6% 로 가장 많았고 크지만 입을 수 있다고 한 경우도 44.4% 로 모두 잘맞거나 입을 수 있는 정도이나, 키가 158cm에서 164cm의 그룹은 크지만 입을 수 있다가 가장 많은 55.6%이고 너무 크다고 한 경우도 작은 비율이지만 있었다. 키가 158cm미만일 때에는 너무 크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더 늘어난 33.3% 였다.

허리부위에서는 키가 158cm이상 164cm의 그룹과 164cm이상인 그룹 모두 잘 맞는다가 가장 많았으나, 164cm이상인 그룹은 작지만 입을 수 있다가 더 많았다. 키가 158cm미만인 경우에는 크지만 입을 수 있다가 가장 많았다. 엉덩이부위에서도 허리부위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즉, 키가 164cm이상인 경우에는 잘 맞거나 작지만 입을 수 있다가 83.3% 이지만 158cm이상 164cm미만인 경우에는 잘 맞거나 크지만 입을 수 있다가 88.9% 이고 158cm미만인 그룹은 너무크다고 한 경우도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많은 20.0%나 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부위에서는 키가 큰 그룹일수록 잘맞거나 작지만 입을 수 있다고 키가 작은 그룹일수록 잘맞는다고 하는 응답자들은 줄어들고 크다고 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어깨부위에서는 키가 158cm이상 164cm미만인 그룹과 164cm이상인 그룹 모두 잘맞거나 크지만 입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158cm미만인 그룹은 너무 크다가 20.0% 나 되었다. 그러나, 등길이에서는 세그룹 모두 크지만 입을 수 있다가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158cm미만인 그룹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크지만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밑위길이에서는 158cm미만인 그룹은 크지만 입을 수 있다가 가장 많았으나, 다른 두 그룹은 잘 맞는다고 대답한 수가 70.0%이상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키가 작은 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복을 찾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특히

같은 아시아 여성일지라도 키가 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여성들보다 비교적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복을 찾기가 쉬운 것을 알 수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1991년 10월 한달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 시티에 살고 있는 60 명의 아시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미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복 구입상황과 맞춤새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복은 주로 백화점에서 구입하며, 드레스나 정장의 경우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다고 50.0% 정도로 가장 많았다.

2. 스웨터와 스커트, 바지는 대체적으로 잘 맞는 편이나 정장, 드레스 등은 거의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정장이나 드레스 등은 보다 몸에 잘 맞게 입어야 하는 의복이기 때문이다. 또한 블라우스보다 스커트와 바지가 잘 맞는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은 상체보다 하체에 잘 맞는 의복을 찾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구입한 의복이 잘 맞지 않았을 때에는 수선한다가 가장 많았고,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한다가 가장 많았다.

4. 연령과 의복문제점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등길이, 밑위길이에서 결혼여부와 의복문제점과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길이에서 기혼여성들보다 미혼여성들의 경우 더 많은 응답자들이 잘맞는다고 하였고, 밑위길에서는 결혼한 경우는 71.4% 가 잘 맞는다고 했으나 미혼의 경우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6. 직업유무는 스커트길이에 영향을 미쳐 의복문제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여성들의 50% 가 스커트길이가 길지만 입을 수 있다고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에 53.6% 가 잘 맞는다고 하였다.

7. 키는 가슴, 허리, 엉덩이, 어깨길이, 등길이, 밑위길이 등에서 의복문제점들과 관계가있

다. 키가 작은 그룹일수록 크지만 입을 수 있다와 너무 크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서 키가 작은 아시아 여성일수록 의복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키가 큰 경우에도 신체부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복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여성들의 신체부위별 비율이 미국의 의류업체가 정하고 있는 사이즈의 신체비율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이 구입한 의복들의 경우, 주로 길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여성들의 의복문제점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체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체형을 분석하고, 표준 사이즈의 미국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들의 체형이 적절하게 분류되어져 그 사이즈 항목에 맞는 의복이 생산되어져야 한다. 또한 아시아여성들의 자기개념과 의복문제점과의 관계가 조사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Aldrich, W. 1982. *Metric Pattern Cutting*. London; Bell and Hyman LTD
- Chen, T. Y. 1986. Struggling for the new world. *China Times Weekly*. 81. 22-31.
- Cheng, H. L. 1986. Improved Image of Asian American. *China Times Weekly*. 63. 73-76
- Denton, M. J. 1971. Fit, Stretch and Comfort. *Proceedings from the Third Shirley International Seminar*. Manchester, England: Cotton, Silk, and Manmade Fibers Research Association.
- Hogge, V. & Baer, M. 1986. Elderly Women's Clothing: Acquisition, Fit, and Alterations of Ready-to-Wear Garmen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333-341.
- Horn, M. & Gurel, 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umphrey, C., Klaasen, M., &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 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6-250.
- Jersild, A. T. 1957.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 Y.: the MacMillan Company.
- Kersh, E. 1984. An Investigation of the Clothing Problems of Tall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Kundel, C. 1976. Blue Collar Worker's Cloth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4(4). 225-234.
- Labat, K. 1987.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PLS-St. Paul. MN
- Minott, J. 1978. *Fitting Skirts and Pants*.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 Pray, A. 1987. The Petite Market: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Retail Buyers/Managers and Consum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lorado State University.
- Problems and Pleasures of Tall Women. 1979. *Ebony*. March. 44-50.
- Reich, N. & Shannon, E. 1980. Handicap: Common Physical Limitation and Clothing-Related Nee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 437-444.
- Salusso-Deonier, C. 1982. Adult Female Body Form Variation in relation to the U. S. Standard for Apparel Siz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 Sieben, W. 1985. Econom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Imperfect Consumer Information Regarding Performance of Textile Produ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김선화

Sizing: From Average to Average. 1977. Clothes. Feb. 15. 32-34.

Slater, K. 1986. The Assessment of Comfort. Journal of the Textile Institute. 77 (3). 157-171.

Sletten, R. C. G. & Petrich, B. 1983. Clothing Problems as Perceived by Mexican Im-

migrant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289-293

Stone, G. P. 1962. Appearance on the Self. Arnold M. Rose(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Boston: Houghton Mifflin Co.